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 우 택

2000年 2月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우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199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

현 우 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현대의 시대는 스트레스의 시대라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생기는 범좌의 행각은 심각한 부적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비단 어른들이나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단순히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환경(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런 환경(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은 아동들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 등에 대한 원인을 알려고 동기화 되어 있고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는 내외통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동들과 스트레스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어떻게 관계되며, 개인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워진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가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있는 8개의 초등학교 남·여 6학년 218명(잘못 기재한 아동은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인 SPSS 7.5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립심 향상, 자부심 향상을 높이면서 다정 다감한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들은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고 과격한 양육태도를 부모가 보일수록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동들의 신중성이 떨어졌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정서 지향적 대처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다정다감한 태도를 보일 시에는 아동들이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시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할 때 보다 좋은 경험을 얻으면서 끝냄을 알 수 있었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양육 태도가 부족할 시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운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가 과격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아동들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문제를 회피하며 새로운 신념과 태도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으로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내적 상호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노력

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스트레스를 대처하게끔 하는 능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외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운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게끔 하는 능력이 약간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이 대해서 자립심 향상과 애정-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육태도는 지향해야 할 것이며 과격한 양육태도나 간섭적인 양육태도는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와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부모의 양육태도	4
2. 내외통제성의 개념 및 특성	6
3. 스트레스 대처양식	10
4.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13
III. 연구의 방법	17
1. 연구 대상	17
2. 측정도구	17
3. 자료 처리	21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22
V. 요약 및 결론	50
1. 요약	50
2. 결론	52
3. 제언	54
참고문헌	55
Abstract	61
부 록	65

표 목 차

<표Ⅲ-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18
<표Ⅲ-2> 내외통제성의 분류	19
<표Ⅲ-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 분류	20
<표Ⅳ-1> 일반적 사항의 결과	22
<표Ⅳ-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수 평가	24
<표Ⅳ-3> 분석을 위해 분류된 양육태도의 하위 분류	25
<표Ⅳ-4> 분석을 위해 분류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하위 분류	25
<표Ⅳ-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26
<표Ⅳ-6>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26
<표Ⅳ-7>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28
<표Ⅳ-8>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29
<표Ⅳ-9>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0
<표Ⅳ-10>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1
<표Ⅳ-1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2
<표Ⅳ-12>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2
<표Ⅳ-1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3
<표Ⅳ-14>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3
<표Ⅳ-1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4
<표Ⅳ-16>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5
<표Ⅳ-1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6
<표Ⅳ-18>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6
<표Ⅳ-19> 요인 사이의 내적 상호 작용 검증 결과	37
<표Ⅳ-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7
<표Ⅳ-21>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38

<표Ⅳ-22> 요인 사이의 내적 상호관계 검증 결과	38
<표Ⅳ-23>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39
<표Ⅳ-24>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41
<표Ⅳ-25> 내외 통제 요인들의 분류	42
<표Ⅳ-26> 스트레스 대처 요인에 대한 하위 분류	43
<표Ⅳ-27>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43
<표Ⅳ-28>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44
<표Ⅳ-29>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45
<표Ⅳ-30>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46
<표Ⅳ-3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내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47
<표Ⅳ-32>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외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48
<표Ⅳ-33>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내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48
<표Ⅳ-34>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외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속에 살아가고 있다. 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계층,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스트레스는 그 근저에 여러 가지 위협, 다양한 좌절, 그리고 불안과 갈등이 자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경감, 해소, 발산, 승화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초래한다.

요즘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 매체들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 및 아동들이 자살, 폭력, 약물 남용, 가출, 절도, 심지어는 살인 등의 사건이다. 이것은 성장기의 청소년과 아동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예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부적응의 한 예로 주어지는 생활사태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어른들의 문제이거나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아동들의 약물남용, 자살 기도, 비행 등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을 목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여러 분야(의학, 심리학, 상담)에서의 스트레스에 관한 공통된 결론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경험하면 생애 활력을 주고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성윤, 1991).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해 사람마다 지각수준이나 대처행동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어떤 요인들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스트레스와 심리적 대처와 관련된 요인들에는 개인의 성격 특성, 생물·유전학적인 속성, 사회·심리적 환경 등이 있다(이종목,1990).

최성윤(1991)은 가정환경과 아동의 정신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동들은 아동의 가정 환경 변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에 환경적 요소 중 가정의 분위기(전제적 - 협동적, 수용적 - 거부적)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외부적인 것으로 가정환경 중 과정환경으로서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 대처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되었다.

개인의 생활과 그 생활 사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선행 조건으로서 자녀의 환경적 특성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의 정의적 특성들의 한 영역으로서 성격특성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김병임,1992 ; 최성윤, 1991)이 있다. 또한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 등에 대한 원인을 알려고 동기화 되어 있고 그 인과 관계를 추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 정확한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 또는 귀인과정(Attribution process)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능하다고 지각하거나 스트레스 원인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Atkinson, 1983).

이러한 배경에 따라 내외 통제성이나, 귀인성향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개인의 내외 통제성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어떻게 관계되며, 개인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활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성의 제고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통제성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내적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내적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내적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임)

2-2.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내적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통제성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3-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통제성간에는 내적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선행 연구들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언행, 표정, 마음 쓰임 등 포괄적인 부모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자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Freud의 정신분석학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 심리학, 교육학, 의학, 가정학, 그리고 사회사업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과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들이 탐색되었다

유안진(1981)은 부모의 자녀양육이란 학교 교육과는 달리 계획성이 별로 없고 그 방법도 부모와의 접촉이 주가 되며 주로 모범, 관조, 명령, 훈계, 비평, 암시, 금지 등의 과정이라 했고 또한 가정보다 나은 학교는 없고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교사는 없다고 하였다.

Watson(1957)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구성이나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요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종승(1982)은 양육태도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서로 다른 유형들로 구분하고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였으며 그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요인축에 의해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2개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의애형, 거부에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Symonds는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란 “한마디로 중용을 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거부적도 아니요, 지배적도 아니며 과보호적도 아니요, 복종적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Laferc(1949)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지배적인 부모, 협동적인 부모, 타협적인 부모, 달래는 부모로 분류하였다. Hurlock(1950)은 양육태도를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일반적인 태도, 의애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aldwin(1955)은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행동의 평가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가정분위기를 민주적 가정, 전제적 가정, 의애적 가정,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하였다. Sears(1957)는 양육태도를 제한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Radke(재인용 변혜중,1990)는 부모가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할 때 자녀는 불안정감, 공격성, 질투심, 신경증 등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형이면서 복종형일 경우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고했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형이면서 지배형일 경우 반항적이 되고 거부형이면서 복종형일 경우는 충동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연구들로 미루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문화적 배경, 대상, 조사방법, 역할요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녀의 정서적 행동 특성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개념상으로 다르며 사실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수용에 따라 달리 지각됨을 발

견하였다. 즉, 자아수용이 낮은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함정숙,1981 참조).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과 자녀들의 지각을 비교하여 연구한 Katkovsky(1967)등은 부모자신의 지각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 관련해서 더 높은 예언력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 측면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진술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의 지각양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인간의 지각행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격형성에는 실제의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란 자녀에 의해 오랫동안 관찰되고, 다른 부모와 비교된 결과로 형성된 것이므로 비교적 안정된 것이고, 또 실제의 양육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여러 연구(유영희,1979; Rohner,1980)들은 연구능력의 한계상 부모의 양육행동을 일일이 관찰하지 못하고, 자녀의 지각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내외통제성의 개념 및 특성

내외통제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내외통제성은 여러 성격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미국에서 Phares가 과업 성공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기회 및 역할의 차이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연구했고, 그 후 Rotter가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Rotter에 의하면, 자신의 행동 후에 수반되는 보상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연이나 운명이 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보고, 다른 경우에는 우연이나 다른 사람의 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람마다 보상의 대한 지각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행동에 수반되는 보상이 주로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다른 것이며 그 같은 지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같은 지각 또는 신념을 Rotter는 내외통제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외통제성을 내(internal) - 외(external)의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는 단일 차원으로 설정하고 어떤 사상이 자신의 행동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을 내적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졌다고 말하고, 자신의 행동과 그 후에 나타난 사상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또 그 사상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면, 그 개인을 외적통제성(ex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졌다고 말한다.

내외통제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귀인(attribution)이 있다. 귀인이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추정하는 인간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einer, 1979). 내외통제성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고 그러한 사건의 통제 가능성이 그 사건의 원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외통제성과 귀인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어떤 성취과제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능력 부족이나 불운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외적통제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원인을 노력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전략으로 지각할 경우 내적통제의 신념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외통제성과 귀인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내외통제성 이론은 귀인 이론과 중복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통제성과 귀인은 개념상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내외통제성 이론에 비해서 귀인 이론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으며 복잡하다(Weiner,1979). 즉 내외통제성 이론은 행동과 강화에 대한 개인의 통제신념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반면, 귀인 이론은 물체의 움직임이나 사건, 그리고 자신의 행동 외에도 타인 행동에 대한 지

각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귀인 이론가들은 인간의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귀인의 차원을 안정성, 보편성등으로 나누어야 하며, 실패와 성공의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Abramson 등, 1978; Weiner, 1979).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볼 때 내외통제성과 귀인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 개념이 인간의 행동 특성을 기술, 설명, 예언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Moyal(1977)은 20개의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여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이 무력감, 자기비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반면에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자존심과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했다.

내외통제성은 정보추구와 과제수행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모호한 상황으로부터 정보 및 법칙을 빨리 알아내어 이를 문제해결에 이용한다고 한다(Ducette와 Wolk, 1973). 한편 내외통제성을 지닌 사람의 동기적 측면을 연구한 Baron과 Ganz(1972)는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내적 강화가 주어질 때 과제수행이 우수해졌으며,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외적 강화가 이루어졌을 때 과제수행에 우월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조희진, 1982참조).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의 행동 특성이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의 행동특성에 비해 긍정적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즉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문제해결과 과제수행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갖지만,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은 높은 자존심과 함께 능동적인 자세와 건설적인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내외통제성이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내외통제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내외통제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Bialer(1961)와 Crandall(1965)등은 어린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의 경험들이 외적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성장해 나감에 따라 아동은 자기자신의 행동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신념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변해감을 보고하였다. 특히 Crandall(1965)등은 내외통제성의 발달은 성인까지 계속되기는 하나 그 대부분의 발달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시기에 거의 완성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Nowicki와 Strikland(1973)는 3~12세의 학생들을 연구하였는데 내적통제성이 일정하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훈구(1980)는 초등학교 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사이에는 내적통제성의 증가가 매우 적었음을 보고했다.

다음으로 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구결과들이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성인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내제적이라는 연구결과(Mcginnies 등, 1974)와 의미있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Hersch와 Scheibe, 1967)가 불일치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내제적이라는 연구결과(Greun 등, 1974),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 등 (손종식, 1974; 정은주, 손진훈, 1981; 조현주, 1981)이 불일치하고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류층의 아동이 하류층의 아동에 비해 내적통제성을 많이 지녔다는 보고가 있다(Battle과 Rotter, 1972). 이러한 연구결과는 Franklin(1963)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Lefcourt와 Ladwig(196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하류층의 아동이 중류층의 아동보다 외제적이라는 것은 실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통제불능 경험이나 통제가능 경험은 아동의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이훈구(1980)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동의 내적통제성의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볼 때, 내외통제성은 개인차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면서 사회적 장면에서의 적응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내외통제성향과 스트레스대처양식을 관련지어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추론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의견일치가 별로 없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이 용어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 원래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을 가진 'stringere' 라는 라틴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14세기에는 고난, 역경 또는 고통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7세기 이후로는 물리학의 맥락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가해지는 힘이나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때 한 대상이 외적인 힘이나 압력에 의해 받게되는 영향은 긴장(strain)이라는 용어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스트레스를 한 유기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자극의 측면에서 개념화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하나의 반응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곤란한 상황에서 한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및 생리적 반응들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좀 더 최근의 이론들은 스트레스를 단순한 어떠한 자극이나 반응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강조한다.

아동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는 6,7세부터 11,12세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구조가 생성되고 발달하는 시기로 구체적 조작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규칙을 학습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또 가족 밖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 책, 텔레비전 등 매스컴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특별히 이전에는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과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됨으로, 아동은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혹할 만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동들은 그들이 미처 준비가 되기 전에 여러 종류의 성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적응능력을 무리하게 강요당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David, Elkind, 1983).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요인들은 어른들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요인들과 비슷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도 어른들과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

은 아동들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고 어른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직면한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어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점과,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Donald C. Medeiros etc,1983).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노력이다. 대처(coping)란 자신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 정의되며(Lazarus & Folkman, 1984), 특정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특정 행동 반응을 대처방식(coping strategies)이라 한다(Compass, 1987).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Pearlin & Schooler, 1978 ; Moos & Billings, 1984 ; Lazarus et., 1981)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촉진 요인이 된다고 한다(Jounard, 1975).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이은영, 1981: 이종목, 1985) 이러한 개인적 원인 중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원인 중의 하나가 통제성이다.

Quick(재인용 고희숙,1997) 등에 따르면, 자신에게 환경통제력이 있다고 믿는 내적통제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의 위협을 덜 받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

대처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다. 접근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형태의 대처방식을 말한다. 회피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형태의 대처행동을 말한다.

접근적 대처 모델과 회피적 대처 모델들은 능동적 혹은 접근 지향적 대수동적 혹은 회피 지향적 전략들로 개념화된다(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적극적 혹은 접근적 전략들은 문제에 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 혹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한다. 회피적 전략들은 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한다(Ebata & Moos, 1991).

Folkman과 Lazarus(1980)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대처양식 모델을 제안했다. 이들은 재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대처하는 대처노력을 그 기능에 따라 문제지향성 대처와 정서지향성 대처로 대별했다.

문제지향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는 노력이고,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문제지향적 대처에는 문제 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간의 갈등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포함되는데 반해,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또는 자아나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처반응이다.

또한 Lazarus는 1986년에 사람들이 한가지 유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성혜(1989)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을 많이 할수록 우울이나 불안, 적대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 지향적 대처방식보다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이소은, 1990; 진은경, 1990)에서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며, 정서 지향적 대처방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황명숙(1991)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영자(1995)의 연구에서도 남녀간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있어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에 있어 대체로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과 정서 지향적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남녀간의 성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azarus(1984)는 대처양식을 문제지향과 정서지향으로 분류하고 사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대처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Lazarus et al, 1978 ; 1980 ; 1981). 그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문제지향적 행동유형, 정서지향적 행동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는 Lazarus의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4.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먼저 양육태도와 스트레스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가정의 환경적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인간은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아동기를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점에서 가정생활과 아동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rtersen (1981)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빈번한 의사 소통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대처를 강화한다고 하였다(제인용 Goldberger & Brenznitz, 1982).

강두원(1989)은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으며, 가정환경의 지위환경보다는 과정환경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성윤(1991)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이 낮은 아동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이 높은 아동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정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경우 보다 협동적이고 응집력이 강할 때 아동들은 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이고, 수용적인 부모하에서 자란 아동이 거부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하에서 자라는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성장환경 중 과정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이 부모를 어떻게 지각했느냐가 생활사태 속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Atkinson, 1979). Bachrach와 그의 동료들(1985)은 지역사회에 유해한 소비기관이 들어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대처행동을 취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해한 기관에 반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정부에 편지를 쓰는 등 문제해결지향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관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적 감정을 조절하려는 정서지향적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으며 이것은 또한 자기 유능감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유능감은 사건의 통제부위(Locus of Control ; LOC)와도 관계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인지하는 내재적 통제신념은 스트레스를 운명, 요행, 또는 권력 있는 타인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고 보는 외재적 통제신념보다 스트레스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고 한다(Rotter, 1965).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자들이 정보를 더 추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에 더 저항하며, 그들 자신과 남들에게 책임을 더 귀속시킨다. 자기 책임성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다 잘 인식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당면과제에 직면하여서도 열심히 해결하려는 의욕을 갖게 되어 과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성취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은 그의 통제소제에 대한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동이 자기의 당면과제의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일정한 과제의 성공은 후속되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로 하여금 주의력, 지속력과 같은 도구적 행동(instrumental behaviors)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성취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성취에 의해 이러한 도구적 행동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Heider(1958)가 가정한 바와 같이 아동은 어떤 과제의 성취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내외적 요인 중 어느 쪽에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기 평가와 다음 과제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처럼 어떤 과제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지각이나 신념은 그의 성취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수준의 과제나 혹은 통제 불가능한 문제 등의 처리에 있어 내재적 통제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행감소를 보인다(조춘원, 1992)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리고 내적통제자의 경우 학습결과를 자기의 노력 결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기력이 학습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을 경험한다(조춘원, 1992)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적 통제자가 반드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처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은 출생하여 가정내에서 가정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양육태도에 따른 부모의 자극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부모 및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남상인, 1983).

Crandall(1965)등은 지적성취에 영향을 주는 아동교육에 관한 요인을 조사하려는 연구에서 내외통제성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게 이미 안정된 성격으로 정착함을 보여 주었으며 상당히 어린 시기부터 이 성격이 발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서 강화를 통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내외통제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Scars(1965)는 부모의 양육방법, 양육조건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을 결정해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Rotter(1966)에 의하면 내외통제 신념들이 어느 정도는 일반적, 사회적 모델링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양육태도와 내외통제 신념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Katkovsky(1967)등은 부모의 태도가 따뜻하고, 격려하고, 애정적, 지지적이면 내재적 통제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Davis와 Phares(1969)는 외재적 통제자들이 내재적 통제자들 보다 더 자주

양친이 교육상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종식(1974)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기대적, 보호적, 정서적으로 인지한 자녀가 더욱 내재적 통제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여 가정의 분위기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내외통제성 발달의 선행요인임을 밝혀주었다.

국내의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수용적일 때 내적인 통제성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변해종, 1990 ; 조춘원, 1992).

양육 태도와 통제귀인과 관련해서도 부의 양육 태도가 수용적일 때 통제가능한 쪽으로 귀인 한다(장명옥, 1991)고 했고 권순병(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한 집단이 성패귀인을 통제 가능한 쪽으로 귀인 되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지각한 집단은 통제가능으로 귀인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하나의 시사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발달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 중에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사이에는 의의 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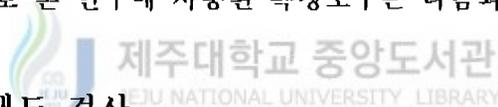
Ⅲ.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도내에 있는 8개 초등학교 남·여 초등학생 6학년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아동을 제외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 스트레스 대처양식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본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권순명(1993)이,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었고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된 PARQ(Parental Accept-Rejection Questionnaire)척도와 정원식(1970)이 제작한 가정환경 진단검사 도구를 검토하여, 제작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문항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Cronbach- α 계수는 父의 경우 .87, 母의 경우 .88이었다(권순명,1993).

설문 문항의 수는 총 40문항이었지만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주요 설문 문항을 선택한 뒤 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 별로 내용을 하위 분류하였다. 분류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나뉘어진 하위

분류를 대표하는 요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영향력이 높은 몇 개의 설문 문항만 추출하였다.

<표Ⅲ-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면	양육태도 방법	양육태도의 내용
양육태도의 긍정적 인 측면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	☞나의 힘이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신다.(1) 요인1-1 ☞일상 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해보라”는 말씀을 자주하신다.(15) 요인 1-2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주신다.(19) 요인1-3
	애정어린 관심을 갖는 양육태도	☞나에게 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3) 요인 2-1 ☞친구들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신다.(5) 요인 2-2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11) 요인 2-3
	자부심을 키워주는 양육태도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신다.(7) 요인 3-1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더 버릇이 좋다고 생각하신다.(9) 요인 3-2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퍽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17) 요인 3-3
양육태도의 부정적 인 측면	부관심·부정적인 관심을 갖는 양육태도	☞너무 나를 어린애 취급하신다.(2) ☞나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웃기도 하신다.(4) ☞내가 잘못하면 내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신다.(8)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12) 요인 4 ☞나에게 “~안돼”, 또는 “~못쓴다”의 말씀을 자주 하신다.(16) ☞내가 몇 시에 자고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으신다.(24)
	엄격한 양육태도	☞친구들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심.(6) 요인5 ☞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 들면 싫어하신다.(10)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18) ☞한 번 지시·명령하신 것은 꼭 지키도록 자주 확인하신다.(23)
	과격한 양육태도	☞화가 나시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신다.(22) 요인 6
	간섭적인 양육태도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14) 요인 7

2) 아동용 내외통제 척도

Nowicki와 Strickland(1973)가 제작한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을 김지혜(198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아동의 대담이 용이하도록 “그렇다”,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도록 한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모든 문항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하였다. 따라서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자신이 통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우연 또는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내재적 통제 성향에 긍정하면 0점, 부정하면 1점씩을 부여하고 외재적 통제 성향의 문항에 긍정하면 1점, 부정하면 0점씩 부여한다.

여기서도 요인분석을 통해서 내적·외적 통제성의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설문 문항들만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택한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0.75를 상회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Ⅲ- 2> 내외통제성의 분류

내외 통제성의 분류	해 석	통 제 내 용
내적 통제성	내적 통제성이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	1, 3, 4, 6, 9, 12, 14, 16
외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은 강력한 타인이나 우연, 행운이 자신의 인생의 행동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	2, 5, 7, 8, 10, 11, 13, 15

3)스트레스 대처 양식 검사

본 스트레스 대처 양식 설문지는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Lazarus와 folkman 이 개발한(6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 (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 문항들 일부를 삭제시키고 수정 보완하여 6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값이 0.87이상이었으며 문제 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소망적 사고 및 사회적지지 추구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명숙(1993)이 62문항 중 문제지향적 대처 및 정서지향적 대처와 관련이 있는 문항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은 40개의 문항으로 발췌하여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Ⅲ-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 분류

대처 양식	대처 방법	대처 내용
문제지향적 대처양식	주어진 문제에 대책, 단서 마련	1, 7, 18, 37 (문제대처1,7,18,37)
	주어진 문제에 대한 파악	6, 19 (문제대처 6,19)
	주어진 문제의 회피	10, 31, 33, 34 (문제대처 10, 31, 33, 34)
정서지향적 대처양식	새로운 신념을 마련	28, 29, 39 (정서대처 28, 29, 39)
	새로운 것의 발견	20, 38 (정서대처 20, 38)
	다른 정서적인 방법의 이용	8,15,16,17,25 (정서대처 8, 15, 16, 17, 25)
	주어진 문제를 운으로 돌림	5, 12 (정서대처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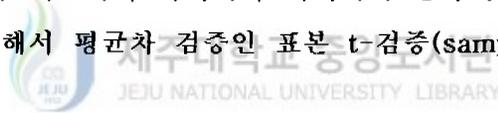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해서 제주도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자료 218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통계패키지 Windows용 SPSS 7.5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설문지는 학교별,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별, 부모의 생활근거지별, 부모의 나이별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과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별, 성별, 부모의 최종 학력별, 부모의 생활근거지별, 부모의 나이별에 대한 빈도 분석하였고 주어진 가설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의 대처양식간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를 밝혀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차 검증인 표본 t-검증(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위에서 주어진 연구의 방법을 가지고 설문 문항을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표 IV-1> 일반적 사항의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범주		빈도수(명)	빈도 (%)
응답자의 성별	남	111	50.9%
	여	107	49.1%
응답자 아버지의 학력	대졸이상	58	26.9%
	고졸	120	55.6%
	중졸	27	12.5%
	국졸이하	11	5.1%
응답자 어머니의 학력	대졸이상	29	13.4%
	고졸	128	59.3%
	중졸	45	20.8%
	국졸이하	14	6.5%
응답자의 거주지	대도시	91	41.7%
	중소도시	36	16.5%
	군읍지역	56	25.7%
	농어촌	35	16.1%
응답자 아버지의 연령	35세 미만	9	4.1%
	36세-40세	75	34.6%
	41세-45세	106	48.8%
	46세 이상	27	12.4%
응답자 어머니의 연령	35세 미만	38	17.4%
	36세-40세	118	54.1%
	41세-45세	54	24.8%
	46세 이상	8	3.7%

<표IV-1>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먼저 응답한 학생의 성별의 비율을 보면 여자 어린이(107명)보다 남자 어린이(111명)이 많음을 알 수 있고, 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중·대도시에 사는 아동(127명)이 소도시에 사는 학생(91명)들보다 많음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부모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높고 응답자의 아버지는 41세~45세, 어머니는 36세~40세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 부모님의 학력을 보면 70%이상이 고졸이하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대도시에 사는 남자 어린이가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

<표IV-2>에 나와 있는 설문 문항 M1(양육태도-아버지 1번)~M25, F1(양육태도-어머니 1번)~F25는 질문지(I)에 나와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는」와 「나의 어머니께서는」에 대한 25문제의 문항을 대신 나타낸 것이다. M1~M25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고 F1~F25는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다. (평가척도 : 1-전혀 아니다, 2-대체로 아니다, 3-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

<표Ⅳ-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수 평가

변인 실분분항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F)1	3.38	0.73	3.44	0.76
M(F)2	1.86	0.95	1.96	0.99
M(F)3	2.98	0.86	2.99	0.88
M(F)4	2.73	1.11	2.63	1.08
M(F)5	2.82	0.91	3.19	0.84
M(F)6	1.78	0.91	1.87	0.91
M(F)7	3.05	0.97	2.94	0.96
M(F)8	1.85	0.98	1.89	0.98
M(F)9	2.86	0.90	2.95	0.95
M(F)10	1.81	0.90	1.80	0.89
M(F)11	2.12	1.04	2.01	1.03
M(F)12	1.83	0.93	1.79	0.91
M(F)13	3.00	0.84	3.14	0.84
M(F)14	1.41	0.72	1.39	0.68
M(F)15	1.78	0.88	1.73	0.86
M(F)16	3.09	0.84	3.18	0.86
M(F)17	2.82	0.92	3.01	0.92
M(F)18	2.81	0.88	2.87	0.88
M(F)19	2.51	0.95	2.46	0.92
M(F)20	2.67	0.95	2.76	1.03
M(F)21	2.46	1.09	2.06	1.08
M(F)22	2.73	0.98	2.89	0.98
M(F)23	2.22	1.04	2.82	1.10
M(F)24	2.64	1.01	2.51	1.00
M(F)25	2.74	0.98	2.86	0.92

위에서 나온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평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4점에 가까우면 긍정적인 견해를 묻는 문항이면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묻는 문항이면 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M1 문항에 대한 평점이 3.38인데 이 문항은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힘이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신다」 이므로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내적 관계

먼저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내적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분류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하위영역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많은 결과가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선택하여 분석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동들이 지각한 정도에는 통계적 검증 결과 차이가 없으므로²⁾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측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다.

<표Ⅳ-3> 분석을 위해 분류된 양육태도의 하위 분류

양육 태도의 측면	양육 태도 방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 (요인 1-1, 2, 3)
	애정-관심을 갖는 양육태도 (요인 2-1,2,3)
	자부심을 키워주는 양육태도 (요인 3-1,2,3)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	무관심·부정적인 관심을 갖는 양육태도 (요인 4)
	엄격한 양육태도 (요인 5)
	과격한 양육태도 (요인 6)
	간섭적인 양육태도 (요인 7)

<표Ⅳ-4> 분석을 위해 분류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하위 분류

스트레스 대처 양식	스트레스 대처 방법
문제 지향적 대처양식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단서 마련 (대책, 단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내용 파악 (문제파악)
	주어진 문제에 대한 회피 (문제 회피)
정서 지향적 대처양식	새로운 신념의 마련 (신념)
	보다 나은 새로운 것의 발견 (새로운 것의 발견)
	다른 정서적인 방법의 이용 (다른 정서방법이용)
	주어진 문제를 운으로 돌림 (운)

2) 본 연구 논문 66p 참고

(1)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양식

<표IV- 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1-1 (설문 문항1)				요인1-2 (설문 문항 15)				요인1-3 (설문 문항 19)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문제 대처 1 (설문 지Ⅲ 1)	전혀 사용 않음	2		3	3	4	3	1		1	3	1	3
	약간 사용			14	13	10	9	6	2	1	15	9	2
	어느 정도 사용	2	9	37	35	33	33	14	3	17	33	29	4
	아주 많이 사용	3	2	39	56	56	25	14	5	14	27	31	28
문제 대처7 (설문 지Ⅲ 7)	전혀 사용 않음	2	1	19	8	15	5	9	1	4	11	9	6
	약간 사용	3	6	44	40	36	39	14	4	16	32	33	12
	어느 정도 사용	1	3	21	33	31	15	9	3	6	24	17	11
	아주 많이 사용	1	1	9	26	21	11	3	2	7	11	11	8

<표IV-6>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문제대처 1	23.141**	9.671	25.469***
문제대처 7	19.081*	11.469	3.124
문제대처18	21.401*	13.114	9.041
문제대처37	20.004*	19.968*	8.101

* p < . 05 ** p < . 01 *** p < . 001

위의 χ^2 결과를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요인 1과 문

제 지향적 대처 양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요인 1-1과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큼(p -value=0.003, 0.044, 0.017, 0.018)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립심을 키우는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아이들은 문제 지향적인 스트레스 대처 양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 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문제 대처 1 (설문 지Ⅲ 1)	전혀 사용 않음	2	2	2	2	3	2	2	1	5	1	1	1
	약간 사용	2	5	15	5	2	8	15	2	9	11	5	2
	어느 정도 사용	6	10	47	20	8	22	35	17	27	25	21	10
	아주 많이 사용	6	17	42	35	8	17	41	33	37	28	19	16
문제 대처7 (설문 지Ⅲ 7)	전혀 사용 않음	7	5	12	6	5	4	12	8	14	8	4	4
	약간 사용	3	15	49	26	6	29	40	18	30	34	20	9
	어느 정도 사용	3	9	32	14	6	9	29	13	22	14	15	7
	아주 많이 사용	3	5	13	16	4	7	12	14	12	9	7	9
문제 대처 18 (설문 지Ⅲ 18)	전혀 사용 않음	3	4	10	4	7	1	9	4	9	2	7	3
	약간 사용	4	13	35	16	5	25	25	13	23	30	12	3
	어느 정도 사용	4	14	43	23	5	14	42	21	26	23	18	17
	아주 많이 사용	5	3	18	19	4	9	17	15	20	10	9	6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문제 대처 37 (설문 지Ⅲ 37)	전혀 사용 않음	5	4	5	5	6	2	6	5	11	2	2	4
	약간 사용	3	12	37	11	5	20	27	10	17	24	13	9
	어느 정도 사용	4	12	45	21	7	20	35	19	23	31	21	7
	아주 많이 사용	4	6	19	25	3	7	25	19	27	8	10	9

<표Ⅳ-8>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문제대처 1	11.255	18.271*	6.551
문제대처 7	19.801*	13.854	9.962
문제대처18	11.461	28.487***	19.457*
문제대처37	27.077***	21.771**	22.768**

* p < . 05 ** p < .01 *** p < .001

위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 2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서 애정-관심을 갖는 양육태도이다. χ^2 검증 결과 지각된 애정-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징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들이 부모의 지각된 양육태도로 애정-관심의 양육태도를 느끼면 아동들의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활동계획을 세운다거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세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은 부작용(요인2-3과 문제대처-37)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3-1				요인 3-2				요인 3-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문제 대처 1 (설문 지Ⅲ 1)	전혀 사용 않음	3	1	2	2	1	1	4	2	1	2	5	
	약간 사용	1	3	10	13	4	9	8	6	2	9	9	7
	어느 정도 사용	10	12	36	25	6	22	39	16	6	25	35	17
	아주 많이 사용	9	12	35	44	6	21	40	33	9	25	32	34
문제 대처7 (설문 지Ⅲ 7)	전혀 사용 않음	5	5	7	13	4	7	13	6	7	10	10	3
	약간 사용	6	15	44	28	5	27	42	19	6	29	37	21
	어느 정도 사용	6	7	21	24	3	13	27	15	2	18	22	16
	아주 많이 사용	6	1	11	19	5	6	9	17	3	4	12	18
문제 대처 18 (설문 지Ⅲ 18)	전혀 사용 않음	3	4	7	7	3	3	7	8	2	5	10	4
	약간 사용	6	5	33	24	5	23	29	11	10	24	25	9
	어느 정도 사용	10	15	33	26	5	18	41	20	2	24	31	27
	아주 많이 사용	4	4	10	27	4	9	14	18	4	8	15	18

		요인 3-1				요인 3-2				요인 3-3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로 다름	대체 로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문제 대처 37 (설문 지Ⅲ 37)	전혀 사용 않음	3	1	8	7	5	4	3	7	3	3	8	5
	약간 사용	5	11	31	16	1	18	29	15	3	20	26	14
	어느 정도 사용	8	8	31	35	7	26	34	15	9	25	32	16
	아주 많이 사용	7	8	13	26	4	5	25	20	3	13	15	23

<표Ⅳ-10>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3-1	요인 3-2	요인 3-3
문제대처 1	11.954	9.516	9.25
문제대처 7	15.904	16.322	25.967**
문제대처18	17.197	15.419	19.937**
문제대처37	13.327	27.939***	14.217

** p < .01 *** p < .001

위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 3은 자부심을 향상시켜 주는 아동이 지각한 긍정적인 양육 태도이다. χ^2 검증 결과 자부심 향상을 주는 지각된 양육 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는 유의한 차이($\chi^2=25.96, 19.93, 27.93$)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 사이 특징적인 결과는 아동들이 자부심을 향상시켜 준다고 긍정적 양육 태도를 느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움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부심 향상의 양육 태도로 인해 아동들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경향은 부족하였다.

<표 IV-1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문제 대처 6 (실문 지Ⅲ 6)	전혀 사용 않음	2	1	8	2	4	5	4		2	6	2	3
	약간 사용	1	1	21	19	10	18	10	4	9	12	14	7
	어느 정도 사용	1	5	44	44	16	4	47	27	12	38	33	11
	아주 많이 사용	3	4	20	42	5	2	42	20	10	22	21	16
문제 대처 19 (실문 지Ⅲ 19)	전혀 사용 않음	2		10	2	6	4	4			9	3	2
	약간 사용	1	3	22	24	18	22	10		6	20	17	7
	어느 정도 사용	1	3	33	36	31	27	13	2	9	31	23	10
	아주 많이 사용	3	5	28	45	48	17	8	8	18	18	27	18

<표 IV-12>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문제대처 6	18.786	20.805**	8.200
문제대처 19	15.784	22.475**	16.707

** p < . 01

위의 χ^2 검증 결과는 두 요인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chi^2=20.805, 22.475$)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징적인 것은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는 아동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문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표 IV- 1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3-1				요인 3-2				요인 3-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문제 대처 33 (실문 지Ⅲ 33)	전혀 사용 않음	12	7	14	19	4	8	21	19	4	15	18	15
	약간 사용	3	10	33	23	1	25	33	10	3	26	26	14
	어느 정도 사용	5	7	29	21	8	13	25	16	6	14	25	17
	아주 많이 사용	3	4	7	21	4	7	12	12	5	6	12	12
문제 대처 34 (실문 지Ⅲ 34)	전혀 사용 않음	9	8	28	35	8	20	27	25	8	20	24	28
	약간 사용	6	10	33	16	3	14	35	13	3	20	30	12
	어느 정도 사용	4	6	14	18	3	13	19	7	4	11	16	11
	아주 많이 사용	4	4	8	15	3	6	10	12	3	10	11	7

<표 IV-14>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3-1	요인 3-2	요인 3-3
문제대처 10	10.287	17.997*	11.920
문제대처 33	7.373	13.929	22.785**
문제대처 34	23.806**	20.273*	9.703
문제대처 31	10.488	12.149	8.664

* p < . 05 ** p < . 01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2 검증 결과 아동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중 주어진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사이에는 유의한 차이($\chi^2=23.8, 20.27, 22.78$)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징적인 것은 아동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하게 되면 일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현상이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표Ⅳ- 1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정서 대처 29 (실문 지Ⅲ 29)	전혀 사용 않음	2	1	2	2	1	2	2	2	2	3		2
	약간 사용	4	8	38	11	6	15	27	12	17	23	16	5
	어느 정도 사용	3	16	42	26	6	24	38	18	31	25	22	9
	아주 많이 사용	7	9	24	23	8	8	26	21	28	14	8	13
정서 대처 28 (실문 지Ⅲ 28)	전혀 사용 않음	4	4	6	3	4	4	1	8	9	2	3	3
	약간 사용	4	9	37	13	3	19	32	7	18	28	12	5
	어느 정도 사용	3	10	41	22	8	16	33	19	22	20	21	13
	아주 많이 사용	5	11	22	24	6	10	27	19	29	15	10	8

<표 IV- 16>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정서대처28	17.560	23.447**	17.672*
정서대처29	16.312	8.906	16.025
정서대처39	10.970	23.545**	14.920

* p < . 05 ** p < . 01

위의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체 양식의 내적 상관관계들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χ^2 검증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에서 애정-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체 양식에서 새로운 신념을 얻는 대처 양식에는 내적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징적인 현상은 애정-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양육태도 시 아동들이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 1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정서 대처 20 (실문 지Ⅲ 20)	전혀 사용 않음	1		6	4	3	3	5		1	4	3	3
	약간 사용	1	2	30	18	20	21	7	3	7	17	18	9
	어느 정도 사용	2	8	27	38	33	24	14	4	10	34	23	8
	아주 많이 사용	3	1	30	46	46	22	9	3	15	22	26	17
정서 대처 38 (실문 지Ⅲ 38)	전혀 사용 않음		3	12	9	8	9	5	2	3	9	6	6
	약간 사용	2	1	31	17	21	18	11	1	8	22	19	2
	어느 정도 사용	1	6	27	38	32	25	10	5	11	31	19	11
	아주 많이 사용	4	1	23	43	42	18	9	2	11	16	26	18

<표 IV-18>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정서대처20	17.483*	13.921	8.330
정서대처38	21.676**	10.053	16.535

* p < . 05 ** p < . 01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2 검증 결과 자립심을 키우는 부모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방안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chi^2=17.48, 21.676$)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시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 때 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냄을 알 수 있었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표IV- 19> 요인 사이의 내적 상호 작용 검증 결과

χ^2 검증 결과	요인 2-1	요인 2-2	요인 2-3
정서대처20	11.810	11.250	13.026
정서대처38	23.210**	16.060	15.352

** p < . 01

그리고 <표 IV- 19>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중에서 애정-관심을 갖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IV- 1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려는 경향(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문제 대처 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 20>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양육요인 2-1				양육요인 2-2				양육요인 2-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정서 대처 12 (설문 지Ⅲ 12)	전혀 사용 않음	4	8	34	19	6	13	35	11	28	16	11	10
	약간 사용	4	11	43	19	6	24	29	17	19	33	19	6
	어느 정도 사용	3	8	17	11	3	8	15	12	13	8	13	5
	아주 많이 사용	5	7	12	13	6	4	14	13	18	8	3	8

<표IV-21> 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

χ^2 검증 결과	양육요인2-1	양육요인2-2	양육요인2-3
정서대처 5	17.134	8.124	20.106*
정서대처12	13.885	5.653	22.376**

* p < . 05 ** p < . 01

위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 중에서 애정-관심을 갖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중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운명으로 돌리는 경향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χ^2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징적인 것은 부모가 자식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으로 돌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IV- 22> 요인 사이의 내적 상호관계 검증 결과

χ^2 검증 결과	양육요인3-1	양육요인3-2	양육요인3-3
정서대처 5	13.483	11.562	10.223
정서대처12	19.484*	17.209*	25.348**

* p < . 05 ** p < . 01

<표 IV- 22>의 χ^2 검증 결과를 보면 자부심을 키우는 긍정적인 양육태도 시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운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와 비교 시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서 지향적 문제 대처 양식 중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운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부심을 키우는 양육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3)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표Ⅳ-23>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문제 대처 (대 체, 단서)	전혀 사용 않음	12	9	6	3	9	11	4	24	10	10	5	5	18	5	6	1
	약간 사용	34	41	13	5	3	31	16	43	7	34	30	22	59	23	8	3
	어느 정도 사용	29	20	3	6	28	21	7	2	5	15	25	13	46	11	1	
	아주 많이 사용	21	10	2	4	5	8	1	4	3	7	10	17	31	5		1
문제 대처 (분 체 과 야)	전혀 사용 않음	5	3	5		5	4	1	3	4	4	23	23	10		1	2
	약간 사용	16	18	3	5	20	16	3	2	7	17	13	5	28	10	4	
	어느 정도 사용	43	31	12	8	43	31	16	4	10	30	32	22	62	25	6	1
	아주 많이 사용	32	28	4	5	36	20	8	5	4	15	3	2	54	9	4	2
문제 대처 (분 체 회 외)	전혀 사용 않음	28	19	2	3	26	15	6	5	5	14	13	10	42	5	4	1
	약간 사용	23	26	14	6	30	26	9	4	7	22	31	19	43	19	5	2
	어느 정도 사용	27	23	6	6	29	21	11		5	25	18	14	43	15	4	
	아주 많이 사용	18	12	2	3	19	9	2	5	8	5	8	14	26	5	2	2

위의 결과는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

식사이의 내적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2)와 달리 세부 문항별 관계는 생략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온 요인들만 간추려 요약하여 상호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18.858$)을 알 수 있고 내적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엄격한 양육 태도일수록 아동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 경우의 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과격한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29.613$)을 알 수 있고, 내적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과격한 양육 태도일수록 아동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 경우의 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아동들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격한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파악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19.709$)을 알 수 있고 내적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과격한 양육 태도 시에는 아동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신중히 파악하는 경우의 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아동들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격한 양육태도와 문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26.004$)을 알 수 있고 내적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과격한 양육 태도 시에는 아동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경우의 빈도가 어느 정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이로 인해 아동들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표 IV- 24>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차분석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정서 대처 (신 념)	전혀 사용 없음	10	2	2	3	6	4	4	2	5	5	2	5	13	2	1	1
	약간 사용	25	23	9	6	25	24	11	3	10	26	18	9	37	19	6	1
	어느 정도 사용	32	32	8	4	38	25	10	3	7	22	26	21	57	13	5	1
	아주 많이 사용	29	23	5	5	35	18	3	6	3	13	24	22	47	10	3	2

<표 IV-23>과 마찬가지로 <표 IV- 24>의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 사이의 내적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①과 ②와 달리 세부 문항별 관계는 생략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요인들만 간추려 요약하여 상호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격한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새로운 신념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유의 차이가 있음($\chi^2=21.864$)을 알 수 있고, 내적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과격한 양육 태도일수록 아동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신념을 마련하는 경우의 빈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신념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격한 양육태도가 아동들의 새로운 신념을 마련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격한 양육태도와 정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 새로운 것의 발견과 다른 정서적인 방법의 이

용 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29.711, 18.691$)을 알 수 있고 내적 상관 관계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커질수록 새로운 것을 찾거나 다른 정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4.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내적 관계

여기서는 내외 통제성을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으로 나누어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Ⅳ- 25>, <표 Ⅳ-26>에 나온 내용들은 요인 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요인들이 그 요인들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설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Ⅳ- 25> 내외 통제 요인들의 분류

통제성의 분류	해석	통제 요인	
내적 통제성	내적 통제성이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	자신 의지가 일에 영향을 미침	통제요인 1·2
		노력의 대가로 좋은 일을 이룸	통제요인 3·4
외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은 강력한 타인이나 우연, 행운이 자신의 인생의 행동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	처음부터 운명이라 생각함	통제요인 5
		직면한 문제에 대해 운명을 탓함	통제요인 6

<표 IV- 26> 스트레스 대처 요인에 대한 하위 분류

대 처 양 식	대 처 방 법	대 처 요 인
문제 지향적 대처양식	주어진 문제에 대책, 단서 마련	대처 요인1
	주어진 문제에 대한 파악	대처 요인2
	주어진 문제의 회피	대처 요인3
정서 지향적 대처양식	새로운 신념을 마련	대처 요인4
	새로운 것의 발견	대처 요인5
	다른 정서적인 방법의 이용	대처 요인6
	주어진 문제를 운으로 돌림	대처 요인7

(1)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표 IV- 27>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통제요인 1		통제요인 2		통제요인 3		통제요인 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대처 요인1	전혀 사용 없음	16	14	14	16	22	7	22	8
	약간 사용	65	28	53	39	75	18	81	11
	어느 정도 사용	37	21	30	28	40	17	51	7
	아주 많이 사용	26	11	24	13	32	5	34	3
대처 요인2	전혀 사용 없음	6	7	9	4	7	5	7	6
	약간 사용	31	11	18	24	31	11	32	9
	어느 정도 사용	62	32	50	43	72	21	87	7
	아주 많이 사용	45	24	44	25	59	10	62	7
대처 요인3	전혀 사용 없음	34	18	31	20	41	9	46	6
	약간 사용	47	22	37	32	51	18	62	6
	어느 정도 사용	42	20	32	30	47	15	49	13
	아주 많이 사용	21	14	21	14	30	5	31	4

<표 IV- 27>은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내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 결과 대처 요인 2(직면 문제에 대한 파악 능력)와 통제 요인 4(노력의 대가로 좋은 일을 이룸)간에 유의한 차이($\chi^2=18.114$)가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노력의 대가로 좋은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대처 양식으로 직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표 IV- 28>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통제요인 1		통제요인 2		통제요인 3		통제요인 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대처 요인4	전혀 사용 않음	9	8	9	8	8	9	11	6
	약간 사용	39	24	33	29	52	11	55	7
	어느 정도 사용	50	26	41	35	58	16	66	10
	아주 많이 사용	46	16	38	24	51	11	56	6
대처 요인5	전혀 사용 않음	14	10	9	15	19	4	17	7
	약간 사용	36	15	30	21	38	13	45	6
	어느 정도 사용	44	28	41	30	52	19	62	9
	아주 많이 사용	50	21	41	30	60	11	64	7
대처 요인6	전혀 사용 않음	36	19	30	25	38	15	43	12
	약간 사용	31	25	30	26	41	15	49	6
	어느 정도 사용	39	20	35	23	48	11	54	5
	아주 많이 사용	38	10	26	22	42	6	42	6
대처 요인7	전혀 사용 않음	19	13	15	17	27	4	30	2
	약간 사용	35	13	23	25	37	11	41	6
	어느 정도 사용	33	18	33	17	40	11	49	2
	아주 많이 사용	57	30	50	37	65	21	68	19

<표 IV- 28>은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내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 결과 대처 요인 5(새로운 것의 발견하는 태도)와 통제 요인 3·4(노력의 대가로 좋은 일을 이룸)간에 유의한 차이($\chi^2=18.114, 8.002$)가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노력의 대가로 좋은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대처 양식으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표IV- 29>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통제 요인 5		통제 요인 6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대처 요인1	선혀 사용 많음	15	15	21	9
	약간 사용	39	54	68	25
	어느 정도 사용	25	33	41	17
	아주 많이 사용	12	25	30	7
대처 요인2	선혀 사용 많음	6	7	10	3
	약간 사용	17	25	29	13
	어느 정도 사용	40	54	69	25
	아주 많이 사용	28	41	52	17
대처 요인3	선혀 사용 많음	19	33	37	15
	약간 사용	23	46	50	19
	어느 정도 사용	28	34	45	17
	아주 많이 사용	21	14	28	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표IV- 30>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

		통제 요인 5		통제 요인 6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대처 요인4	전혀 사용 않음	9	8	10	7
	약간 사용	26	37	40	23
	어느 정도 사용	32	44	58	18
	아주 많이 사용	24	38	52	10
대처 요인5	전혀 사용 않음	12	12	15	9
	약간 사용	23	28	34	17
	어느 정도 사용	25	47	55	17
	아주 많이 사용	31	40	56	15
대처 요인6	전혀 사용 않음	17	38	40	15
	약간 사용	22	34	41	15
	어느 정도 사용	26	33	46	13
	아주 많이 사용	26	22	33	15
대처 요인7	전혀 사용 않음	12	20	17	15
	약간 사용	19	29	43	5
	어느 정도 사용	26	25	41	10
	아주 많이 사용	34	53	59	28

<표IV- 29>의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에는 교차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고 <표IV- 30>의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정서 지향적 대처 양식의 관계에는 대처요인 7(주어진 문제에 대해 운명으로 타협)과 통제 요인6(운에 의해서 발생한 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위에서 일어난 운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운명을 타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 통제성의 상호 관계

여기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 통제성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볼 수 있다.

<표Ⅳ- 3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내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빈도											
통 제 요인1	예	67	48	23	6	9	20	72	43	12	16	56	60
	아니 오	36	22	12	4	7	14	34	19	11	12	27	24
통 제 요인2	예	57	38	21	5	8	16	58	39	14	16	40	51
	아니 오	45	32	14	5	8	18	47	23	9	12	42	33
통 제 요인3	예	8	50	23	88	14	28	83	44	17	25	60	67
	아니 오	14	20	11	2	2	6	22	17	5	3	23	16
통 제 요인4	예	92	60	28	8	13	29	90	56	18	27	73	70
	아니 오	11	10	6	2	3	4	16	6	5	1	10	13

교차분석 결과 내적 통제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통제요인 3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chi^2=8.03$)을 알 수 있고,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양육을 할 수록 내적 통제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표Ⅳ- 32>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외적통제성의 상호 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 의 같 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전혀 다름	대체 다름	대체 같음	거의 같음
통제 요인5	예	43	26	20	2	7	16	40	28	11	16	31	33
	아니오	60	44	15	8	9	18	66	34	12	12	52	51
통제 요인6	예	78	51	23	8	12	25	75	48	18	19	57	66
	아니오	25	19	12	2	4	9	31	14	5	9	26	18

통계적으로 상호 작용이 없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하여 아이들의 외적 통제성의 조절이 어려워 보인다.

<표Ⅳ- 33>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내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전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간 음	거 의 간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간 음	거 의 간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간 음	거 의 간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간 음	거 의 간 음
통제 요인1	예	55	58	18	13	69	49	15	10	12	50	44	38	99	34	8	3
	아니오	41	22	6	5	35	22	13	4	13	16	26	19	55	10	7	2
통제 요인2	예	49	47	13	12	57	40	16	8	12	33	36	40	86	24	9	2
	아니오	47	32	11	6	46	31	12	6	13	32	34	17	67	20	6	3
통제 요인3	예	69	70	16	14	85	51	22	10	19	48	52	50	119	34	12	4
	아니오	26	9	8	4	19	18	6	4	6	18	17	6	34	10	2	1
통제 요인4	예	82	69	20	17	95	57	24	12	16	55	63	54	132	40	11	5
	아니오	14	11	4		9	14	3	2	9	11	6	3	22	4	3	

<표Ⅳ- 33>의 교차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다. 아동

들에 대한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록 즉,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할수록 아동들의 내적 통제성이 커짐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함($\chi^2=8.633$)을 또한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IV- 3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IV- 34>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외적 통제성의 상호 관계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전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같 음	거 의 같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같 음	거 의 같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같 음	거 의 같 음	전 혀 다 름	대 체 다 름	대 체 같 음	거 의 같 음
통제 요인5	예	40	32	8	11	48	24	11	7	13	24	27	27	64	17	8	2
	아니오	56	48	16	7	56	47	17	7	12	42	43	30	90	27	7	3
통제 요인6	예	74	58	16	12	83	48	19	9	18	45	51	46	122	26	8	4
	아니오	22	22	8	6	21	23	9	5	7	21	19	11	32	18	7	1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어떻게 관계되며, 개인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분석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활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성의 제고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통제성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내적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 통제성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있는 8개의 초등학교 남·여 6학년 218명(잘못 기재한 아동은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

패키지인 SPSS 7.5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한 자료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내적상호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대처양식은 문제지향적 대처 양식과 정서지향적 대처 양식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립심 향상, 자부심 향상을 높이면서 다정 다감한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들은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함($\chi^2 = 23.14, p < .01, \chi^2 = 28.49, p < .001, \chi^2 = 27.93, p < .0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고 과격한 양육태도를 부모가 보일수록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chi^2 = 29.61, p < .001$)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동들의 신중성($\chi^2 = 19.71, p < .05$)이 떨어졌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정서 지향적 대처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다정다감한 태도를 보일 시에는 아동들이 새로운 신념($\chi^2 = 23.45, p < .01$)을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chi^2 = 23.55, p < .01$)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시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할 때 보다 좋은 경험을 얻으면서 끝냄($\chi^2 = 17.48, p < .05$)을 알 수 있었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함($\chi^2 = 21.68, p < .01$)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가 부족할 시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운으로 돌리는 경향($\chi^2 = 25.35, p < .01$)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가 과격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아동들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chi^2 = 29.61, p < .001$)을 느꼈고, 문제를 회피하며 새로운
신념과 태도를 얻기가 어려웠다($\chi^2 = 26.01, p < .01$).

그 다음으로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내적 상호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자
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노력
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스트레스를 대처하게끔 하는 능력이 향상
($\chi^2 = 18.11, p < .05$)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외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
기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운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게끔
하는 능력이 약간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외통제성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고, 부모들이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갖지 않을수록 아동들의
내적 통제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2.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
었으며 이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문제 지향적 대처양식과 정서 지
향적 대처양식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문제 지향적 대처 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립
심 향상, 자부심 향상을 높이면서 다정 다감한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들은 문제 해
결책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정서 지향적 대처양식에 대한 내적 상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다정다감한 태도를 보일 시에는 아동들이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자립심을 향상시키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시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 때 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냄을 알 수 있었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양육 태도가 부족할 시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운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과격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아동들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문제를 회피하며 새로운 신념과 태도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고 과격한 양육태도를 부모가 보일수록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동들의 신중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과격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아동들은 새로운 것을 찾거나 다른 정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내적 상호관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컸다.

둘째, 아동의 외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운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의 상호관계에서는 아동은 부모가 자립심을 향상시키고, 관심을 갖는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내적통제성이 커졌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들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방법은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관계에 있어서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립심을 키워주고 애정-관심을 갖는 양육태도,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내적 통제성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의 대처 방안을 운명이나 운에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게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너무 무리한 자립심 향상이나 자부심의 향상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적절한 양육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평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부정적인 경우의 빈도수도 그리 작은 수치가 아니었다. 특히 너무 과격한 양육태도나 너무 간접적인 양육태도는 아이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내적 통제력을 강화하여 자녀들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1995).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식에 관한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고희숙(1997).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식,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 김도의(1993).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장애 분석,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임(1992). 양육태도·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및 학업성취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 김정희·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 김정희(1991). Richard S, Lazarus and Susan Folkman 역,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출판사.
- 김지혜(1981). 우울과 내외통제 성격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변혜중(199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종식(1974), 내재·외재적 성격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안진(1986). [아동환경], 서울:한국방송대학출판부.
-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이종목(1990).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결과 및 대책], 성원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11권, 제 1호 통권 112호.
- 이훈구(1980). 내외통제성 : 한국 초·중·고 학생의 내외 통제 경향성,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5집.
- 장명옥(1991). 직가된 부의 수용거부 태도와 통제귀인 성향과의 관계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1970). [교육환경론], 서울: 배영사.
- 정은주·손진훈(1981). "척도 조작 연구: Nowicki 와 Strickland(1973)의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제10권, 제2호, 통권109호, 1-18..
- 조춘원(1992).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도와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주(1981). 내외제적 통제와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진은경(1990).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성윤(1991).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 함정숙(198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명숙(1991).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 Atkinson, J.W.(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J.: VanNostrand.
- Atkinson, R.L., Atkinson, R.C., & Hilgard, E.R.(1983).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Bailer, I (1961)., Conceptualization of success and failure in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Vol.29, 303-320.
- Baldwin, A.L.,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dhood, N.Y.; Rainhart and Winston,(1955).
- Baron, R.M. & Ganz, R.L.(1972). Effect of locus of control and type of feedback on the task performance of lower-class black-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1,124-130.
- Battle, E. & Rotter, J. B(1972),Children's feelings of persnal control and type of feedback on the task performance of lower-class black-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1,125-130.
- Compass,B.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101,393-403.
- Crandall, V.C., Katkovsky, W., & Crandall, V.J.(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own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 *Child Development*, Vol.36,91-109.
- David, Elkind(1983). *The Hurried Child*, New York: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 Davis,W.L. & Phares, E.J(1969). Parentan antecedents of internal-exte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ports*,24,427-436.
- Donald, C. Medeiros, Barbara, J.Porter, I. David, Welch(1983). *Children Under St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Ducette, J. & Wolk,s.(1973),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6,420-426.
- Ebata A.T., & Moos, R.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ranklin, R.D. (1963). Youth's Expectancies about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Related to N Variables. Purdue University.
- Gruen, G.E., Korte, J.R. & Baun, J.F. (1974). Group measure of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0, 683-686.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 Wiley.
- Hersch, P.D. & Scheibe, K.E. (196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personality dim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0, N.6, 609-613.
- Hurlock (1978)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th ed.), McGraw-Hill.
- Jounard, Sidney (1975). *Growing Experience of Growth*, N.Y.: Allyn and Bacon. Inc.
- Katkovsky, W., Crandall, V.C, Good, S. (1967), Parental antecedents of children's beliefs in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hievements. *Child Development*, Vol. 38, 765-776.
- Lazarus, R.S. (1976). *Pattern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fcourt, H. M. (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 review, *Psychology Bulletin*, Vol.65, No.4, 206-220.
- Lefcourt, H.M. & Ladwig, G.W. (1966). Alienation in negro and white reformatory inm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68, 153-157.
- McGinnies, E., Nordholm, L.A., Ward, C.D. & Bhanthumnavin, D.L.(1974). Sex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ed locus of control among students in five count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3, 451-455.
- Medinnus, G. 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s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9, 150-154.
- Moos, R.H. & Billings, A.G.(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s Among Adult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No.4.
- Moyal, B.R.(1977). Locus of control, self-esteem, stimulus appraisal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5, No.5, 951-952.
- Nowicki, S. & Strickland, B.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0, 148-154.
- Phares, E.J.(1957). Expectancy changes in skill and chance situ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339-342
- Pearlin, V.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Vol.19, pp.2-21.
- Rohner. R.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Vol.15, No.1, 1-22.
- Roth, S., Cohen, L.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80, No.1, 1-28

- Sears, R.R.(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Y: Happear & Row Publishers, Inc.,116.
- Symonds,P.M.(1949),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N.Y.: Bureau of publication,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 Watson .G.A., Some personality difference in child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Psychology*. 44pp 227-249,(1957).
- Weiner, B.(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3-25.



<Abstract>

**A Study on Parents' Bringing Attitude perceived by Pupil and Internal &
External Control and Relationship of Stress Coping Style***

Hyeon, Woo-Taek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As much as called as stress age many people in the modern age live in the stress and the criminal pilgrimage takes place due to it may be said as an example of serious readjustment. Provided however, such matters are not merely problem of adults or youth but are problem of pupils as well. And, stress is not that appears by simply environment stimulation or individual feature and must also be understood by interaction with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 (the home environment and parents' bringing attitude) and such individual and environment (the home environment and parents' bringing attitude) may be closely related to mental health of pupils. And, men are motivated as try to know about the cause of self behavior, other's behavior and result of incident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nd have internal & external control try to presume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0.

causal sequence and this is also considered to hav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upils and stress.

Since therefore, this researcher is try to analyze the parents' bringing attitude as perceived by pupils how to be related to the stress coping aspect of students and the individual's internal & external controlling is how to be related to students stress coping aspect. The studying hypotheses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Hypothesis 1 : There will be some relationship in the stress coping style subject to bringing-up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pupil.

Hypothesis 2 : There will be some relationship in the stress coping style subject to the internal & external controls.

Hypothesis 3 : There will be interaction effectiveness between the parents' bringing-up attitude as perceived and the internal & external controls.

Under this study I conducted questionnaire research to 218 pupils of 6th grader of eight male & female primary schools in Cheju-do and made the factor analysis used SPSS 7.5 which is statistical package and data analysis through the crossed analysi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 could be able to acknowledge that the students provided the problem solving measure and cope with stress as much as having sentimental interest as enhancing the self-sufficiency and pride in the affirmative aspect of the internal interrelationship for affirmative aspect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as perceived and problem headed coping style of stress coping style by pupil. And, it made me to aware that there are many cases the coping ability is dropped down to various problems as much as the parents show puritanical and radical bringing-up attitude in

the negative aspect of the parents' bringing-up attitude as perceived, and at the same time the students' prudence was dropped down.

The internal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ffirmative aspect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perceived by pupil and the coping style of emotion headed coping style of pupil's stress coping style was known as the former showed affection and concerns in the affirmative aspect and when they show sentimental attitude the students obtain new conviction or show strong intent that they will be hard for another work, and when the parents shown affirmative attitude of bringing-up to improve self-sufficiency they finish as gaining a better experience when commencement as there was something and I may be aware that they make efforts to recover something in the life However, to the contrary to it there was such tendency try to shift as destiny about the confronted problem when lack of bringing-up attitude to improve the pride .

The students felt in founding the countermeasure or the origin of the problem as much as show radical attitude by the parents in the negative aspect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as perceived and, it was difficult to get new conviction and attitude by avoiding the problem.

For the next step I looked back the internal interrelation between pupil's internal & external control and stress coping style the contents are as follows: 1) I could be able to know that the ability was improved as to cope with stress by breeding-up power to think that the result of ability to solve problem by himself or everything as much as the internal controlling by pupil is stronger. 2) It was known as the ability causes to cope with stress is improved a little bit by thinking that the confronted problem to himself as much as the external controlling of pupil is stronger.

The research of this study I suggest based upon these contents as follows: Because of it was affirmative that the stress coping manner to

pupils by the affirmative bringing-up attitude to have affection, concerns as well as self-sufficiency by pupils such a bringing-up attitude has to be headed from now on, and radical or interfering bringing-up attitude has to be sublated since it may affect negative impact to the pupils.



< 부 록 >

<부록 1>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의 부·모간의 차이 검증

<부록 2> 통계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1>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의 부·모간의 차이 검증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간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의 평가 척도는 ()의 내용과 같다.

(평가척도 : 1-전혀 아니다, 2-대체로 아니다, 3-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

T-검증의 결과

지각된 양육 태도		M	N	SD	T -통계량	
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	자립심 향상	아버지	1.73	218	0.86	-0.68
		어머니	1.78	218	0.88	
	애정-관심	아버지	2.99	218	0.88	0.14
		어머니	2.98	218	0.86	
	자부심 향상	아버지	2.94	217	0.96	-1.436
		어머니	3.04	217	0.97	
양육태도의 부정적 측면	무관심	아버지	1.79	218	0.91	-0.73
		어머니	1.83	218	0.93	
	엄격한 태도	아버지	1.86	217	0.90	1.166
		어머니	1.78	217	0.91	
	과격한 태도	아버지	2.89	218	0.98	2.177*
		어머니	2.73	218	0.98	
	간섭	아버지	1.39	218	0.68	-0.373
		어머니	1.41	218	0.72	

* p < .05

<부 록 2>

질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자료를 얻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질문지 I, II, III을 차례로 읽고 각 질문의 응답요령과 같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니 학생들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문에 응답해 준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 우 택

일 반 사 항

1. _____ 초등학교 2. 성명 :
3. _____ 학년 4. 성별 : 남 () 여 ()
5. 부모의 최종학력
- 부 : ① 대학교 졸업이상()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초등학교 졸업이하()
- 모 : ① 대학교 졸업이상()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초등학교 졸업이하()
6. 부모의 생활근거지
- ① 대도시(도청소재지) () ② 중·소도시(시) ()
③ 군·읍지역(군청·읍소재지) () ④ 농·어촌()
7. 부모님의 나이는?
- 아버지 : 만()세 어머니 : 만()세

질문지 (I)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평소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고 있으신지를 알아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사실 그대로를 다음의 응답요령과 같이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응답요령						
다음의 각 문장이 여러분에게		전 혀 다 르 다	대 체 로 다 르 다	대 체 로 같 음	거 의 같 음	의 같 음
「거의 같다」고 생각되면 4에 . . .	1	2	3	④		
「대체로 같다」고 생각하면 3에 . . .	1	2	③	4		
「대체로 다르다」고 생각되면 2에 . . .	1	②	3	4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면 1에 . . .	①	2	3	4		
○표를 하면 됩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아 버 지

나의 아버지께서는

	진	히	대체로	대체로	
	다	름	다	름	
	가	나	가	나	
	음	음	음	음	
1.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주신다. -----	1		2	3	4
2.내가 잘못하면 내 친구들 앞에서도 나에게 창피를 주신다. -----	1		2	3	4
3.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	1		2	3	4
4.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했을 경우 나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	1		2	3	4
5.나의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 -----	1		2	3	4
6.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	1		2	3	4
7.나에게 힘이 베풀어 준 일이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신다. -----	1		2	3	4
8.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신다. -----	1		2	3	4
9.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신다. -----	1		2	3	4
10.나를 무섭게 대하신다. -----	1		2	3	4
11.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모두 사다 주실 때가 있다. -----	1		2	3	4
12.친구들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다. -----	1		2	3	4

	전 다	히 름	대체로 다	대체로 같	거 음	의 같	음
13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1		2		3		4
14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	1		2		3		4
15 내가 집에서 말하는 대화나 행동에 관해 별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	1		2		3		4
16 내가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		2		3		4
17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신다. -----	1		2		3		4
18 나를 늘 즐겁게 해주시려고 애쓰신다. -----	1		2		3		4
19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	1		2		3		4
20 친척들의 가족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도 록 하신다. -----	1		2		3		4
21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려 하신다.-	1		2		3		4
22 나에게 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 시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	1		2		3		4
23 나의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다.----	1		2		3		4
24 화가 나셨을 때 나를 심하게 벌 주신다.----	1		2		3		4
25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 도록 분위기를 만드신다. -----	1		2		3		4
26 남들에게 내 칭찬을 하신다.-----	1		2		3		4

	전 다	혀 름	대체로 다	대체로 름	거 음	의 갈
--	--------	--------	----------	----------	--------	--------

- | | | | | | | |
|--|---|--|---|--|---|---|
| 27 스스로 생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 | 1 | | 2 | | 3 | 4 |
| 28 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 싫어하신다.-- | 1 | | 2 | | 3 | 4 |
| 29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 | 1 | | 2 | | 3 | 4 |
| 30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신경쓰지 않으신다. ----- | 1 | | 2 | | 3 | 4 |
| 31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펍 자
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 ----- | 1 | | 2 | | 3 | 4 |
| 32 내가 생각하기에 잊어서는 안될 일도
잊어버리곤 하신다. ----- | 1 | | 2 | | 3 | 4 |
| 33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아버지의 마음
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 | 1 | | 2 | | 3 | 4 |
| 34 계획을 세우실 때 나의 의견을 참고 하신다.-- | 1 | | 2 | | 3 | 4 |
| 35 집안 일의 조력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
록 하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으신다. ----- | 1 | | 2 | | 3 | 4 |
| 36 용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
신다. ----- | 1 | | 2 | | 3 | 4 |
| 37 불편하셔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신다. ----- | 1 | | 2 | | 3 | 4 |
| 38 한번 지시·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
하도록 지켜보신다. ----- | 1 | | 2 | | 3 | 4 |
| 39 내가 하는 일들에 펍 흥미를 갖고 계신다.---- | 1 | | 2 | | 3 | 4 |
| 40 내가 몇시에 자고 일어나든 크게 상관
하지 않으신다.----- | 1 | | 2 | | 3 | 4 |

어머니

나의 어머니께서는

	친 다	허 름	대 체로 같 음	대 체로 같 음
1.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주신다. -----	1	2	3	4
2.내가 잘못하면 내 친구들 앞에서도 나에게 창피를 주신다. -----	1	2	3	4
3.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	1	2	3	4
4.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했을 경우 나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	1	2	3	4
5.나의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 -----	1	2	3	4
6 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	1	2	3	4
7 나에게 힘이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8 나를 너무 어리게 취급하신다. -----	1	2	3	4
9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신다. -----	1	2	3	4
10 나를 무섭게 대하신다. -----	1	2	3	4
11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모두 사다 주실 때가 있다. -----	1	2	3	4
12 친구들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다.-----	1	2	3	4

	전 다	혀 름	대 다	대 름	거 음	의 음
13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1		2		3	4
14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	1		2		3	4
15 내가 집에서 말하는 대화나 행동에 관해 별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	1		2		3	4
16 내가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		2		3	4
17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신다. -----	1		2		3	4
18 나를 늘 즐겁게 해주시려고 애쓰신다. -----	1		2		3	4
19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	1		2		3	4
20 친척들의 가족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도 록 하신다. -----	1		2		3	4
21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려 하신다.---	1		2		3	4
22 나에게 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 시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	1		2		3	4
23 나의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다.----	1		2		3	4
24 화가 나셨을 때 나를 심하게 벌 주신다.----	1		2		3	4
25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 도록 분위기를 만드신다. -----	1		2		3	4
26 남들에게 내 칭찬을 하신다.-----	1		2		3	4

	전 다	혀 름	대체로 다	대체로 름	거 음	의 음
27 스스로 생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28 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 싫어하신다.--1			2	3	4	
29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1			2	3	4	
30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신경쓰지 않으신다. ----- 1			2	3	4	
31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딱 자 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32 내가 생각하기에 잊어서는 안될 일도 잊어버리곤 하신다. -----1			2	3	4	
33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어머니의 마음 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			2	3	4	
34 계획을 세우실 때 나의 의견을 참고 하 신다. -----1				3	4	
35 집안 일의 조력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 록 하고 특별히 지시하지 않으신다. -----1			2	3	4	
36 용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 신다. -----1			2	3	4	
37 불편하셔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신다. -----1			2	3	4	
38 한번 지시·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 하도록 지켜보신다. -----1			2	3	4	
39 내가 하는 일들에 딱 흥미를 갖고 계신다.----1			2	3	4	
40 내가 몇시에 자고 일어나든 크게 상관 하지 않으신다.----- 1			2	3	4	

질문지 (II)

다음 글들은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정답이나 오답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의 응답요령대로 답하면 됩니다.

응답요령

각 글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같은 정도에 따라 보기와 같이 답안지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보 기

예 아니오
※ 만약 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나타냈으면 (○) ()

<예> 에 ○ 표

※ 만약 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다르면 () (○)

<아니오> 에 ○ 표를 하십시오.

글을 읽고 첫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글의 내용이 직접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의 평소의 생각과 태도에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십시오.

☞ 다음 쪽에서부터 응답하세요

예 아니오

1. 여러분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둬니까? ----- () ()
2.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3.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안고 태어난
다고 생각합니까? ----- () ()
4. 학교 성적을 좋게 받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까? ----- () ()
5.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 데도 야단을 맞은 적이
자주 있습니까? ----- () ()
6.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과목이라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7.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8. 아침에 시작하는 일이 잘되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9.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기 집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0. 열심히 소원을 빌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1. 여러분이 벌을 받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2. 친구의 생각(의견)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까? ----- () ()
13. 운보다는 응원이 자기팀 (자기가 이기기를 바라는
팀)의 승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4. 어떤 일에 관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5. 여러분 자신의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도록 부모님이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6. 여러분은 무언가 일이 잘 안될 때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바로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7. 태어날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8.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자신)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9. 대개의 경우 곤란한 일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20. 자신의 경우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까? ----- () ()
21. 만약 네잎클로버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22. 숙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학교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3.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어떤 아이가 여러분을 때리려고 할 때 못때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 ()
24.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장식물(부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 ()
25.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도 되고 싫어하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6.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와 줍니까? ----- () ()
27.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심술궂게 굴 때는 대개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없이 그러니까? ----- () ()
예 아니오

28. 대개의 경우 자신이 오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일 일어날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9. 나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30. 노력만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31. 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봐야 언제나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32.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 ()

33. 여러분 또래의 다른 아이가 여러분에게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34. 여러분 뜻대로 친구를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 () ()

35. 집에서 식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주 말하니까? ----- () ()

36.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러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 () ()

37. 여러분 자신보다 영리한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낀 적이 많습니까? ----- () ()

38.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까?----() ()

39. 운이 좋은 것보다는 영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

40. 무슨 일이건 계획을 잘 세우면 일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니까? ----- () ()

질문지 (Ⅲ)

우리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공부, 친구 사귀기, 학원 다니기, 부모님의 심부름 등 여러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문항에 나타난 생각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잘 생각하여 하나만 골라서 응답요령과 같이 그 번호에 o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요령

다음의 각 문장의 내용을

	전 사 용 하 지 않 음	약 간 사 용	어 느 정 도 사 용	아 주 많 이 사 용	주	사 용
「아주 많이 사용」하면	3	1	2	③		
「어느 정도 사용」하면	2	1	②	3		
「약간 사용」하면	1	0	①	2	3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면	0	0	1	2	3	

○ 표를 하면 됩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전 사 용 않 음	허 약 사	간 용	어 정 사	느 도 용	아 주 많 이 용
-----------------------	-------------	--------	-------------	-------------	-----------------------

1.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0 1 2 3
2. 일이 잘 안될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 보았다. 0 1 2 3
3.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0 1 2 3
5.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0 1 2 3
6.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세히 분석해 본다. 0 1 2 3
7.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0 1 2 3
8.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 버린다. 0 1 2 3
9.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0 1 2 3
10. 시간이 걸리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11. 그 일(또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0 1 2 3
12. 운으로 돌린다. 0 1 2 3
13.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한다. 0 1 2 3
14.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15. 보통 때 보다 더 오래 잔다. 0 1 2 3
16.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화를 낸다. 0 1 2 3
17. 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 말을 자신에게 한다. 0 1 2 3

전 사 용 않 음	허 약 사 용	간 사 용	어 정 사 용	느 도 용	아 많 이 사 용	주
-----------------------	------------------	-------------	------------------	-------------	-----------------------	---

18.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 | | | | | |
|--|---|---|---|---|
| 얻는다. | 0 | 1 | 2 | 3 |
| 19.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 0 | 1 | 2 | 3 |
| 20.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 0 | 1 | 2 | 3 |
| 21. 잠시 그 일(상황)에서 물러나 있다. | 0 | 1 | 2 | 3 |
| 22.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 0 | 1 | 2 | 3 |
| 23. 인간적으로 꽤 변모하거나 성장하게 된다. | 0 | 1 | 2 | 3 |
| 24.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지를 기다려 본다. | 0 | 1 | 2 | 3 |
| 25. 무엇을 먹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 | 0 | 1 | 2 | 3 |
| 26. 되든 안되든 한번 시도해 보거나 모험적인 일을 한다. | 0 | 1 | 2 | 3 |
| 27. 조금씩 하거나 감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 0 | 1 | 2 | 3 |
| 28.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 0 | 1 | 2 | 3 |
| 29. 긍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 0 | 1 | 2 | 3 |
| 30.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 0 | 1 | 2 | 3 |
| 31.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 0 | 1 | 2 | 3 |
| 32.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 0 | 1 | 2 | 3 |
| 33.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0 | 1 | 2 | 3 |
| 34.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 0 | 1 | 2 | 3 |

전 사 용 않 음	허 약 사 용	간 사 용	어 정 사 용	느 도 용	아 주 많 이 사 용
-----------------------	------------------	-------------	------------------	-------------	----------------------------

- | | | | | |
|---|---|---|---|---|
| 35.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운다..... | 0 | 1 | 2 | 3 |
| 36.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 0 | 1 | 2 | 3 |
| 37. 문제 해결을 위해 몇가지 대책을 세운다..... | 0 | 1 | 2 | 3 |
| 38.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 0 | 1 | 2 | 3 |
| 39. 무엇을 해야할 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한다. | 0 | 1 | 2 | 3 |
| 40.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안되면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다. | 0 | 1 | 2 | 3 |

● 끝까지 응답해 준 학생여러분, 고맙습니다. ●

